# "보건교육이 국영수보다 중요하지 않다구요?"
## – 이석희 보건교사회장

글과 사진ㅁ**박연숙**(본지기자)

"건강한 아이, 공부 잘 하는 아이, 당신의 자녀가 어떤 자녀이길 바라십니까?" 라는 질문에 쉽게 '건강' 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아니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정도만 되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그 대답을 망설일지도 모른다.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건강' 인데 아이들을 내모는 현실은 마치 '공부' 가 최우선인 듯 보인다.

이러한 아이들을 항상 대면하는 곳이 학교의 보건실. 서울 양강초등학교 보건교사 이석희 선생님은 25년간 교직에 몸담은 교사로서, 한국의 교육현실에 힘들어하는 자녀의 모습을 바라본 대한민국의 엄마로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진정 옳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는 보건교사회장으로 현실적인 보건교사 배치를 위해 현재 국회에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의 입법 발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다. 보건교사 임용과 관련해 '학교보건법' 과 '초중등교육법' 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달라,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지 않아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이 되고 있다.

"아침에 출근하면 아이들이 보건실 앞에 줄을 서있어요. 저마다 '배가 아파요' '피가 나요' '엄마가 학교 가서 약 먹으래요' 등 이유는 제각각이지요.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다면, 그건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정원이 천명인 학교도 백명인 학교도 보건교사는 한 사람인데, 과거에 비해 보건교사의 업무는 크게 늘어나 정작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지고 있어요."

소위 주요 과목이라 불리는 국영수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평생 건강이 좌우될 수도 있는 아이들의 보건교육에는 일주일에 한 시간도 아깝다는 것

이 현재의 정책이다. 어렸을 때부터 양치질 습관을 잘 들이면 나이 80이 되어서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돈 천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너무 큰 비약일까? 보건교육은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교정하는 교육이고, 평생을 건강관을 갖게 하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국영수 보다 더 근본적인 교육인데,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인 잣대로 교육의 가치를 재단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혹자는 이석희 선생님을 비롯한 보건교사들의 이러한 주장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어쩌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졸업 후 2년간 병원에 근무하다가 84년에 학교에 왔어요. 병원에서 항상 찌푸린 사람들만 보다가 '손톱이 아프다' 며 손가락을 치켜 들고 보건실을 찾아온 꼬마의 모습은 너무 상큼하고 신선했죠. 보건교사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일 거에요. 하고 싶은 말은 못 참는 성격 탓에 보건교사회장으로까지 일하게 되었지만, 학교에서는 그저 아이들이 예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선생님일 뿐이에요."

이석희 선생님을 비롯한 보건교사회에서는 학교 창의력재량 시간 중 한 시간 정도를 할애받아 각종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나 기타 보건단체와 협력해 홍보물, 교재를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나누어 주는 등 보건교사의 일을 학교 보건실 안의 피동적인 업무에 국한시키지 않고 나아가 학생들의 마음까지도 보듬어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